

# 올해 강진 ‘불금불파’ 새로워진다...경제·관광 활력

주차장 67면 신규 조성 접근성 ↑ 지역 농특산물 소개 홍보관 조성 5월 가정의 달 연계 이벤트 준비 주민 참여 ‘병영 장터문화한마당’

‘연탄돼지불고기’ 하면 떠오르는 강진군 병영의 불금불파 행사가 더욱 새로워진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오는 4월 개최될 예정이다. 주차장 신규 조성과 이벤트 강화로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불금불파 부서 실무진들이 행사 추진 사항을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금불파 행사장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67면을 새로 조성해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키기로 했다.

행사장 내 불금불파 텐트촌을 추가 조성해 참여자들이 불고기도 즐기고 가족



지난 19일 강진군 ‘불금불파’ 주관 부서 직원들이 올해 행사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과 함께 오붓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병영시장 장육 내에는 지역 농특산물과 함께 병영상인을 소개하는 병영 상인홍보관도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하멜 브루어리와 연

계한 이벤트를 마련해 관광객들이 하멜 촌맥주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5월 가정의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주민과 상생하는 행사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병영 장터문화한마

당, 할머니장터, 플리마켓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살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장 주변에는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역사·문화적 소재로 활용한 골목 투어도 운영되며 즐거운 EDM DJ 공연과 함께 인기 가수들의 무대도 펼쳐질 예정이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도 풍성하게 준비된다. 강진을 대표하는 돼지불고기와 하멜촌 맥주,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식을 비롯해 다양한 먹거리 매대가 운영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불금불파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발한 작지만 큰 관광상품으로 전국 유일인 독창적인 행사다”며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행사인 만큼 완벽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아이디어를 발굴해 외부 관광객과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무안군,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 총 27개 마을 방문

무안군은 지난 12일부터 청계면 관동 경로당을 시작으로 경로당 이용 주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효사랑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는 보건소 보건의료인력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의료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검사와 상담,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 신체활동 프로그램, 치매선별 검사, 우울증 검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무릎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등 보건사업을 홍보한다. 검사 후 이상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기타 보건사업 및 지역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김성철 보건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되는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는 오는 8월까지 총 27개의 경로당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안=김행연 기자

‘한방에 활력충전’ 프로그램 운영 무안군, 청각장애인 건강권 향상

무안군이 오는 3월6일까지 매주 2회 지역 청각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방에 활력충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한방 의료접근성이 낮은 청각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한방 진료 및 침 시술, 간단한 소도구를 활용한 근력운동, 테이핑 요법 등 한방 관련 영양·건강관리 교육이 제공된다.

원활한 의료상담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무안군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수어 통역 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안=김행연 기자



강진군청 직원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 구간에 대한 신호 및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장소를 협의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무안군, 4인 가구 월 10만원

무안군은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신부·영유아만 18세 이하 아동을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신선한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돕는 동시에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까지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 4인 가구 월 1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지원된다.

바우처는 국산 채소, 과일,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 두부류 등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foodvucher.go.kr), ARS(1551-0857)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이재광 무안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 강진군, 교통안전 단속 확대

강진군이 최근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 구간에 대한 신호 및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장소 협의를 진행했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협의는 강진경찰서, 한국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통량과 사고 발생률을 고려한 최적의 설치 지점을 선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의 대상은 지방도 829호선, 830호선, 827호선, 국도 23호선, 군도 및 국지도 55호선 등 7개 구간으로, 과속 차량이 많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 포함됐다.

강진군은 과속 차량이 집중되는 작천면 갈동리, 야흥리, 칠량면 송정리, 도암면 향촌리 등 5개 구간에도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통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칠량면 영동리와 강진을 평동리에는 다기능 신호체계를 도입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강진군은 한국교통공단과 협력해 단속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지역에 신호 및 단속장비를 적절히 배치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 HD현대삼호-카카오페이, 안전포인트제 협약

온오프라인 가맹점 현금화

HD현대삼호가 카카오페이를 손잡고 임직원의 안전관리 생활화를 위한 안전포인트 제도인 ‘삼호페이’를 도입한다.

HD현대삼호는 지난 21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페이 본사에서 한정동 부사장을 비롯해 카카오페이 백승준 사업총괄 부사장, HD현대삼호 사내협력사협의회 김병수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삼호페이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6월 도입 예정인 삼호페이는 HD현대삼호 및 사내협력사 임직원이 모바



일업을 통해 TBM(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작업지시, 현장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칭찬쿠폰 등 안전활동

에 참여할 경우 실시간으로 안전포인트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시스템이다.

삼호페이로 얻은 안전포인트는 카카오페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HD현대삼호는 삼호페이를 통해 기존의 무재해 등 결과에 따른 보상 중심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벗어나 임직원의 안전 활동 생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정동 HD현대삼호 부사장은 “이번 삼호페이 도입으로 임직원의 적극적인 안전 활동 참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 안전 최우선의 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왕인박사 전국한시 현장 백일장 영암군, 내달 14일까지 우편접수

영암군이 왕인박사의 학덕과 유풍을 계승하고 한시 애호가들의 창작능력 배양을 위해 오는 4월4일 ‘제35회 왕인박사 전국한시현장백일장’을 개최한다.

24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해 280수 이상의 작품이 모이는 등 매년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백일장은 올해 왕인문화축제 현장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백일장에 참여를 원하는 전국 한시동호회 회원은 신청서 등 참가서류를 작성해 지정 서류를 작성해 내달 14일까지 ‘영암군 관광과 한시백일장 담당자 앞’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참가자는 선착순 150명까지만 받는다.

올해 백일장 시제는 ‘축·왕인박사탄생성기동(祝·王仁博士誕生聖基洞)’으로 형식은 칠언율시(七言律詩), 압운은 ‘경자(庚字)통, 생(날생), 명(밝을명), 청(맑을정),迎(맞이할영)’이다.

현장 백일장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 ‘맑을정’과 ‘맞이할영’ 사이의 네 번째 압운은 행사일 현장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군은 제출된 한시 작품 중 왕인박사현장협회에서 추천한 한시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입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장원(壯元) 1명, 차상(次上) 2명, 차하(次下) 3명 등 총 51명에게 상을 주고 장원·차상·차하는 당일 현장에서 발표·시상한다. 영암군은 이후 응모작을 엮은 왕인박사추모한시집 발간하고 장원·차상·차하 등 우수작품은 전시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 등 백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조하면 된다. 영암=한교진 기자

